“임금을 아끼자”…거세지는 무인화 바람

최저임금 인상 손님이 직접 주문·결제 주차관리·간편결제 앱 등 확대 움직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무인화기계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푸드점을 찾은 한 고객이 무인 POS기계를 이용해 주문하고 있다.

“월 대여료 15만원이면 주문과 결제가 해결돼 인건비가 확 줄어들어 안쓸 이유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치솟는 물가 등의 여파로 광주지역 곳곳에 수수료 없는 간편결제·무인서비스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조선대 앞 한 돈까스 전문점은 개업과 동시에 무인 주문기를 들였다.

손님이 직접 터치 스크린으로 주문 후 결제까지 할수 있으며 주문 내역은 곧장 주방으로 전달돼 음식 조리가 들어간다. 요리가 완성된 후 영수증에 찍힌 번호가 호명되면 손님은 직접 주문한 음식을 찾아간다.

식사를 마친 손님이 퇴식구에 식기를 반납까지 하는 구조라 직원이 최소화 되는 시스템이다.

식당 관계자는 “무인서비스 기기를 쓰니 확실히 인건비가 줄었다”며 “지출이 최소화 되니 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를 줄이고, 이용객들은 눈치보지 않고 ‘혼밥’을 할수 있다는 장점에 무인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하는 소상공인들도 점차 늘고 있다. 무인주문기가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여파가 컸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74.7%로 나타났다.

광산구에서 쌀국수집을 운영하는 강모씨(50)도 최근 서빙 담당 아르바이트생을 기계로 대처했다.

강씨는 “한달 15만원의 렌탈비용으로 혼자 가게를 운영할수있게됐다”며 “손님들 반응도 생각보다 좋아 주변 자영업자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차관리 시스템도 무인화 바람이 거세다. 현금결제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정산소 인식 오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전남대학교는 지난 5월부터 주차 무인 시스템을 도입,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새 시스템의 단계적 보안을 거쳐 내년부터는 모든 정산소를 무인화로 전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도 도입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로페이’는 네이버나 카카오페이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으로 가게 QR 코드를 찍으면 판매자에게 돈이 이체된다.

정부도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40%로 높였다. 현재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 공제율이 30%인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중기지방청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로페이가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소상공인들의 가게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수영 수습기자

삼성 2년간 180조 투자·4만명채용

바이오·전장 등 신성장사업 집중 육성

삼성이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역량과 스타트업 지원 경험 등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한편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은 8일 “경제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투자와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3년간 180조원을 새로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단일 그룹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고용 계획으로, 특히 신규 투자액 가운데 약 72%에 해당하는 130조원을 국내에 투입해 약 70만명에 달하는 고용 유발 효과를 노린다는 복안이다.

이번 투자·고용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이후 나온 것이다.

삼성의 투자는 신성장 산업에 집중된다. 인공지능(AI)·5G·바이오·반도체 중심 전장부품 등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선정한 분야에만 약 25조원이 들어간다.

특히 ‘주력’인 반도체의 경우 기존의 PC와 스마트폰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AI, 5G, 데이터센터, 전장부품 등의 신규 수요 증가에 대응해 평택캠퍼스 등 국내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삼성은 3년간 약 2만~2만5천명 수준인 기존 채용 계획을 대폭 확대해 4만명을 직접 채용, 청년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직접 채용 외에도 130조원에 달하는 국내 투자를 통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투자에 따른 고용 유발 40만명과 생산에 따른 고용 유발 30만명을 포함해 약 70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대규모 투자와 고용 외에 삼성은 혁신 역량과 노하우를 개방·공유함으로써 이른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청년 취업준비생 1만명에게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500개 스타트업 과제를 지원한다.

/연합뉴스

광기술원, 방사선 누출 감지 시스템 개발

원전설비에 차별화된 안전진단 제공…부가가치 ↑

한국광기술원(원장 김영선)은 방사선 노출설비나 원전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분포형 방사선 감지와 모니터링 시스템(DRS, Distributed Radiation Sensor)’을 개발,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광기술원 스마트광전연구센터 노병섭 센터장과 김영웅 박사팀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원자로 방호벽, 원자로 증기발생기, 핵 폐기물 처리시설, 원전 내 파이프라인 등에 적용시켰다.

이에 원전설비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이상누출을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대형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지점이나 개인부착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필름형이나 반도체형 센서와 달리 장거리, 대규모 시설물에 특수처리된 광섬유를 부착해 수 km에 이르는 장거리, 대규모 방사선 누출 분포를 수십 cm간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해당 기술은 국내 중소기업에 이전해 사업화를 위한 성능검증과 제품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광기술원 연구원이 분포형 방사선 감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시험 및 기술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광기술원 김영선 원장은 “3차원 방사선 분포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장비가 개발됨에 따라 원전설비에 차별화된 안전진단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기업의 원전설비 수출에도 차별화된 안전진단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분포형 방사선 감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원전 설비의 노후화와 수명연장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 설비, 중성자 충돌기 등 고에너지 연구용 설비와 방사선 의료기기, 우주설비와 같은 다양한 산업과 연구시설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길용현 기자

눈에 쏙 경제지표

코스닥	코스피	금리(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783.81 (−0.89)	2,301.45 (+1.29)	2.09 (+0.01)	1,119.90 (−3.90)

광은, 카드 대금 연체 기간 대비 한도감액

광주은행은 오는 22일부터 신용카드(카드론 포함)를 보유 중인 전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기간에 따른 한도 감액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연체기간 10일 이상 연체자는 10% ▲20일 이상 20% ▲30일·40일 이상 30% ▲50일 이상 100% 각각 감액한다.

이에 따라 고객한도 100만원 사용중 10일 미만 연체 시에는 변경전·후 한도는 달라지지 않지만 ▲10일 이상 연체시에는 1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감액(10%)되며, ▲20일 이상은 90만원에서 70만원(20%) ▲30·40일 이상은 70만원에서 40만원(30%) ▲50일 이상은 20만원에서 ‘0’로 각각 감액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기철 기자

“한 시간 만에 강원도로” 무안~양양공항 특별편 운행

전남에서 강원까지 1시간여 만에 이동할 수 있는 하늘길이 다시 열렸다.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는 오는 10일부터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KEA)가 무안~양양 부정기 노선을 운항한다고 8일 밝혔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하루 1회 왕복 운항한다.

무안 출발 오전 10시(1시간 20분 소요), 양양 출발 오전 11시 50분이다.

편도 요금은 성인 9만4,000원, 어린이 7만6,000원, 군인 7만1,500원이다.

강원도민은 다음 달까지 20% 요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는 2013년부터 광주-양양 노선을 주 3회 운항하다가 2015년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는 소형항공 운송사로서는 최초로 무안~일본 기타큐슈(화·금·일) 노선을 주 3회 정기편으로 운항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무안을 기점으로 일본 돗토리·마쯔모토·시라하마 노선에 전세기편을 운항하고 있다.

/길용현 기자

제4회 아시아 대학바둑 최강전

THE 4th University Cup Asia Baduk Championship

세계바둑의 중심지인 4개국 대학생들이 모여 바둑의 저변확대 및 세계화에 기여!

반상위에서 펼쳐지는 바둑은 그 한 수 한수가 언어이며 소통입니다.
각국 대표 대학생들은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반상위 수담으로 서로를 이해 하고 소통·교류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 할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훈현, 김인, 이세돌 등 세계바둑계의 거목들이 배출된 이곳 남도에서 열리는 아시아 대학바둑 최강전이 한국바둑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바둑 - 하늘과 땅과 사람이 공존하는 하나의 즐거운 축제!!

▸일 시 2018. 8. 24(금) ~ 8. 27(월) (3박4일)
▸장 소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주 최 전남매일
▸주 관 JM스포츠 한국대학바둑연맹